

19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

Chapter

창 4:1~8, 히 11:1~4

산송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배울



말씀

1.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2. 아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오형제 중 네 명의 아들이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집에서 멀리 떠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각자 다른 식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다 아버지 곁에 남아 있던 맏 형이 그들을 데리러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아들은 “나는 이미 이곳에 오두막을 짓고 잘 살고 있어! 아버지의 집보다 여기가 더 좋으니 나는 그냥 이대로 즐길 테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아들은 “나는 형이나 동생들에 비하면 그다지 나쁜 죄를 짓지는 않았어!”라며 다른 아들들의 잘못을 판단하면서 뉘우치고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셋째는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보겠다”며 불가능한 일을 시작합니다. 결국 셋은 모두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겠다고 결정합니다. 오직 막내 한 명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불순종을 솔직히 자백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큰형의 너그러운 손을 잡습니다. 그는 “나 자신을 당신께 의탁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차이는 제물에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고, 사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벨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대속이고 피입니다. 아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다른 제사를 드린 원인은 결국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담에게서 들음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도 동일한 내용을 들었지만 믿음 대신 자신의 행위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 11:4)

By faith Abel offered 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through which he obtained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 God testifying of his gifts; and through it he being dead still speaks. (He 11:4)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1) 엡 2:8~9

2) 롬 3:25~28

3) 갈 2:16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사람은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이 선행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 공식을 보고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 **선행** → 천국 2) **선행 + 믿음** → 천국 3) **믿음** → 천국 - 선행 4) **믿음** → 천국 + 선행

• 롬 3:20 • 마 7:20

• 롬 6:1~2 • 히 11:4

2.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과 자신의 노력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고 정리해서 기록해 봅시다.

1) '선행이 자연스럽다'의 의미 :

2)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이 나온다'의 의미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우리 삶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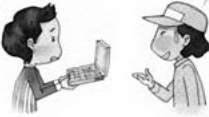
우리들의 이야기

인생의 AS

○○ 서비스센터

새 제품인데
망가졌어요.
새것으로 바꿔
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라서
곤란합니다.



○○ 산부인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아파요.
바꿔 주세요~

에!?



나 돌아갈래~
내 인생
돌리도~

물건이 고장나면
만들어진 곳에 가서
고치든지 교환해야 합니다.
A회사 제품을 B회사에 가서
바꿔 달라고 하면 될까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밧줄과 실을 엮으면

당신이 100m 떨어져 있는 절벽을 건너가려 한다고 합시다. 절벽 사이의 깊이는 1,500m로 까마득합니다. 당신은 몇 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지름 5cm 두께의 강철 밧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밧줄의 길이가 50m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50m 길이의 실이 있습니다. 나의 실과 당신의 밧줄을 묶은 다음 양쪽 절벽 사이에 매면 절벽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제안을 거절하자 나는 “왜 그래요? 밧줄을 못 믿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밧줄은 믿지만 실을 못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 90m의 밧줄과 10m의 실이라고 해 봅시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99m의 밧줄과 1m의 실이라면? 아니면 실이 1cm뿐이라면? 실의 길이가 1cm에 불과하더라도 당신은 100m의 실을 타고 건너는 것과 다름없이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밧줄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실은 우리가 한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찰스 스피전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옷에 우리가 한 땀이라도 더한다면, 옷 전체를 다 망칠 것이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